

## 1998년 회고



맹철현

12월이 시작되는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26년을 보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한동안 잘 한 것인가, 잘 못한 것인가 하고 고민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선택이었지만.

1972년 7월, 더운 여름날 스페리랜드 코리아에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 나도 이제 사회인이 되었고, 드디어 컴퓨터인이 되었다는 들뜬 마음으로 서소문의 동화빌딩 문을 들어설 때의 기분은 잊

---

약력 : • 93~96 한국유니시스(주) 고객지원담당 상무 • 96~98 한국유니시스(주) 부설 정보기술연구소  
• 97~99 한국유니시스(주) IS사업본부 • 99~현재 SEEC KOREA 지사장

지 못한다. 이렇게 나의 컴퓨터 인생은 시작 되었다.

인생에 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첫 직업과 직장 만큼 중요한 갈림길도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인생의 한 줄기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내가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컴퓨터 인생이 어언 29년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 직장에서 26년을 있었느냐고 물을 때가 많았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스카우트 손길이 미치지도 않는 탓도 있었고, 항상 처음 입사하던 날의 회사 출근했을 때의 감격을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참고 견딘 탓도 있었다. 아무튼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잘못된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상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늑을 생각 된다. 상사를 통해서 일도 배우고 삶도 배우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나서, 성실함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인간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이 세상에는 저마다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 살다 보면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자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징벌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나를 붙잡아 둔 것은 징벌권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믿음에서 이다. 아무튼 잘못된 생각을 안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상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래 사람 또한 중요하다. 오래 기억되어지는 아래 사람은 내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을 때도 나에게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요즈음은 아주 약은 사람들이 많아 실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 또 보겠냐는 듯 대하는 사람이 많다. 해바라기 지향형이라 할까?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듯,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것이 아닌가?마음이 오래 머물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고마운 사람이다. 나는 이런 아래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오래 몸 담던 회사를 떠나니 그런 사람들이 그림다. 또한 인간적으로 미안한 점도 많다. 내가 더욱 잘 되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중히 써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한 회한이랄까?

임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비서를 만나게 된다. 임원에게 있어서 비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서가 얼굴이 예쁘고, 날씬하면 눈이야 즐겁겠지만 비서는 역시 일을 잘해야 기억에 남는다. 단순히 차 심부름이나 하고, 전화나 받는 비서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비서는 임원의 업무 능률을 상당히 높인다. 일정관리, 파일관리, 전자매일 작성 등 지시만하면 척척 알아서 처리해주는 비서를 만나면 일은 쉬어 진다. 나도 몇 명의 비서를 만났으나 마음에 머무르는 비서는 그리 많지 않다. 미리미리 척척 알아서 챙겨 주는 비서,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기억하였다가 반갑게 응답하는 비서를 만난다는 것은 일의 생산성에서 많은 힘이 되어 준다.

역시 인생이란, 이런 만남의 연속인가 보다. 이런 만남이 얼마나 자기 곁에 오래 머물러 주는가가 행복의 수준인 것 같다. 태어나서 부모와 만나고, 그 부모와 오래 같이하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오. 성장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오래 같이 함이 또한 행복이다.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고, 그녀와 죽는 날까지 해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자식을 낳고, 그들과 호흡하며 같이 사는 즐거움이 없다면 인생이 무슨 맛이겠는가?

이런 만남도 그들과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인생의 매듭이 있고, 거기에 정이 머문다.

1998년. 잊을 수 없는 한해다. 청춘을 다해서 몸 담고 일했던 회사를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손들고 떠난 해. 집을 이사 할 때 보다도 더 미련 없이, 마치 화장실 떠나듯 떠난 심정은 아마 그렇게 떠나 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 것 같다. 그곳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는 것. 다시 가보더라도 예전에 앉았던 그 방에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 마음을 그렇게 만드나 보다.

고향과 근무했던 회사와는 그래서 다른가 보다. 고향은 그래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어도 머무를 곳은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정들었던 직장을 떠났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 점점 메말라가는 인간미를 언제 다시 훈훈하게 느낄 수 있겠나?

나도 어느 누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어 지는 사람이 되  
는가? 아니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이지는 아닌지? 걱정스러워  
진다.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떠오르는 사람과 그 얼굴을 기억  
해 보며 이 글을 맺는다.

감사합니다.